

#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

—大韓石油協會 弘報室—

**자** 유세계에 대한 石油공급의 대동맥, 호르무즈해협— 폭 60km의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하루 8 백40만배럴의 石油공급이 끊긴다.

그 동안 小康상태를 보여온 이란·이라크戰爭이 최근들어 급격히 拮戰의 양상을 띠며 따라 페르시아灣의 對西方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. 이란·이라크戰이 시작된 이래 지난 3년 7개월간 페르시아灣의 對西方석유수송로가 위협을 받아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.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세계는 보고 있다. 지난 해 6월 이라크가 프랑스로부터 최신예 전폭기도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이란은 이라크가 이들 전폭기로 이란의 하르그島를 공격할 경우, 현재 8백만~8백50만B/D의 原油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.

이에 대응하여 이라크는 지난 해 10월 이란의 반다르 호메이니港口 주변에 기뢰를 부설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페르시아灣을 둘러싼 긴장이 크게 高潮되었던 것이다.

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戰況으로 보아서 양국간의 局地戰으로서가 아니

라 세계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拮戰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페르시아灣 石油에 대한 세계경제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이미 2차에 걸친 石油危機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. 우리나라 도입원유의 中東의존도는 아직도 74%에 이르고 있어 페르시아灣 石油수송로가 차단될 경우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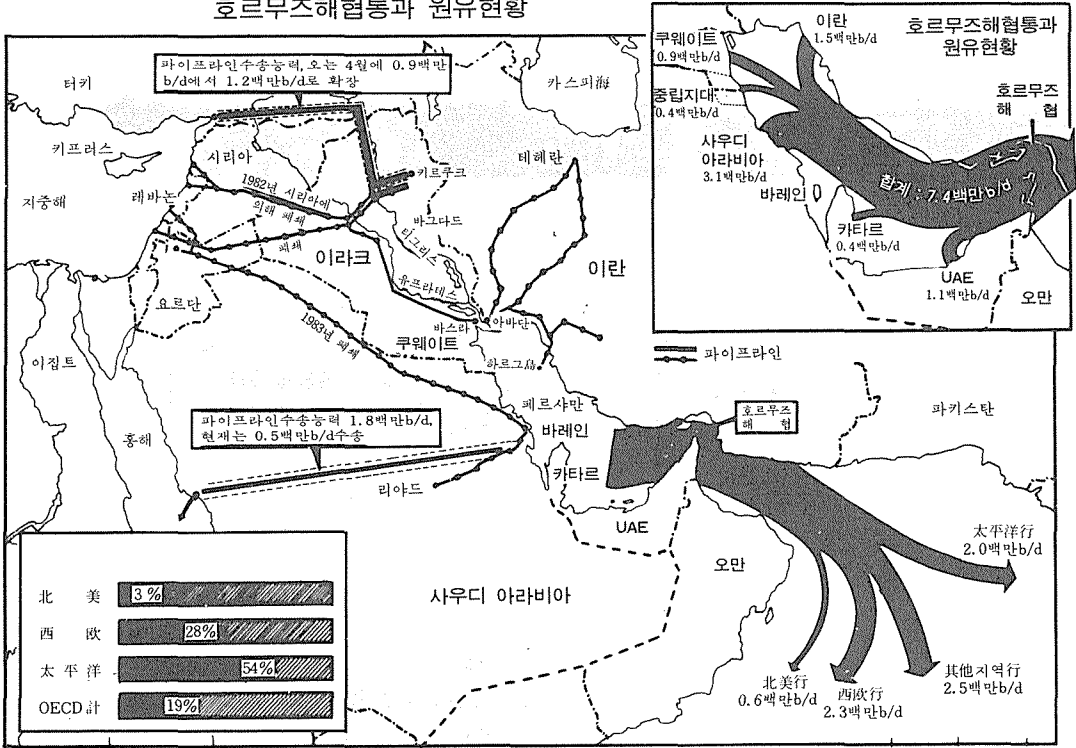
정부는 이란·이라크戰이 악화되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석유소비를 11% 감축하고, LPG는 배급제를 실시하며 기존비축분으로 1백10일간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수급비상대책을 세워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그러면 과연 호르무즈해협은 봉쇄될 것인가? 崔東奎 동력자원부장관은 현재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1%도 안되지만, 실사 해협이 봉쇄된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.

또 세계석유전문가들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해도 제3의 오일쇼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, 美國은 2~4週 이내에 호르무즈해협을 재개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.

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西方세계는 전체석

## 호르무즈해협통과 원유현황



유소비량의 17%에 해당하는 물량의 공급이 중단되지만, 각국이 비축하고 있는 原油 및 현재 수송중에 있는 原油, IEA(국제에너지기구)의 대응책 등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, 세계의 油價와 공급체계에 혼란이 오겠지만, 1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을 되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石油의 공급부족 자체보다는 심리적 영향으로 現物市場 油價가 현재 수준의 2배 정도인 배럴당 60달러線까지 오를 것으로 추측되나 봉쇄가 장기화되지 않는 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.

美 국방성 군사소식통들은 美해군 기동타격대가 현재 페르시아灣 부근해역에서 대기중이며,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부설할 경우 이를 즉각 제거해 유조선의 통행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말하고, 美해군의 기뢰제거작업이 1주일 이내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 경제전문가들도 1주일 정도의 페르시아灣 석유공급중

단이 세계석유공급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. 낙관론의 또 다른 근거는 서방세계의 中東 석유 의존도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.

현재 서방세계 전체석유수요의 17%선인 8백만B/D 내외의 원유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는데, 이는 지난 80년 세계 석유소비비가 피크에 달했던 시기의 1천6백만B/D에 비하면 절반정도로 줄어든 것이다.

만일 이란이 자주 위협해온대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 해도 서방세계가 느끼는 위협은 별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현재 약 6억배럴의 원유가 공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는 중이며, 약 1억5천만배럴이 세계 각국의 해상에 저장되어 있다.

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어 8백만B/D 내외의 원유수송이 중단될 경우 그 절반가량은 나이지리아 등 非페르시아灣 수출국으로부터의 증산에 의해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\*